



발행 : 천주교부산교구 | 편집 : 전산홍보국 629-8750 (48316)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427번길 39 | jubo@catb.kr | 인쇄 : 주보인쇄사(809-2078~9)



2019 사제 성화의 날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 성심 대축일)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

제1독서 신명기 8,2~3.14ㄴ~16ㄱ

화답송 시편 147(146~147),12~13.14~15.19~20ㄴ (◎ 12ㄱ)

◎ 예루살렘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1. 예루살렘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시온아, 네 하느님을 찬양하여라. 그분은 네 성문의 빗장을 튼튼하게 하시고, 네 안에 사는 아들들에게 복을 내리신다. ◎
2. 주님은 네 강토에 평화를 주시고, 기름진 밀로 너를 배불리신다. 당신 말씀 세상에 보내시니, 그 말씀 빠르게도 달려가네. ◎
3. 주님은 당신 말씀 야곱에게, 규칙과 계명 이스라엘에게 알리신다. 어느 민족에게 이같이 하셨던가? 그들은 계명을 알지 못하네. ◎

제2독서 코린토 1서 10,16~17

부속가 <21절부터 시작하여 짧게 할 수도 있다.>

21. 천사의빵 길손음식 자녀들의 참된음식 개에게는 주지마라.
22. 이사악과 파스카양 선조들이 먹은만나 이성사의 예표로다.
23. 참된음식 착한목자 주 예수님 저희에게 크신자비 베푸소서. 저희먹여 기르시고 생명의땅 이끄시어 영생행복 보이소서.
24. 전지전능 주 예수님 이세상에 죽을인생 저세상에 들이시어, 하늘시민 되게하고 주님밥상 함께앉은 상속자로 만드소서.

복음 환호송 요한 6,51 참조

◎ 알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

복음 요한 6,51~58

영성체송 요한 6,56 참조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르리라.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오늘 복음에서 우리는 생명의 원천이시고, 영원한 삶의 보증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류에 대한 사랑 고백을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아끼고 위하는 마음이라는 사전적 의미에서도 나타나지만, 하느님의 우리에게 대한 사랑은 더욱 각별한 것입니다. 제1독서에서 모세가 경험한 하느님의 사랑은, 투정부리고, 졸라대는 어린아이 같은 백성들이지만 내치시거나 싫다 하지 않으시고 한 번도 먹어보지 못했던 만나와 차돌 바위에서 샘솟는 물을 주시는 자비였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느님께서서는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를 얻은 우리를 완전하고 영구적으로 살게 하기 위하여, 직접 이 땅에 오시어 우리의 모습처럼 사시다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써 우리가 필연적으로 마주해야 할 죽음이라는 거

대한 벽을 허무시고, 하느님 당신 본래의 모습대로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죽어 소멸해야 할 우리를 하느님 당신 나라에 초대하셨고 영원히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잃었던 하느님의 영을 우리에게 다시 돌려주시므로써 우리를 천지창조 때의 가장 순수했던 사랑받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세례성사를 통해서 구원을 보증받고 하느님의 세계로 입성할 수 있게 된 선택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고 감히 하느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그러나 이러한 행운도 모자란 듯 하느님께서서는 당신의 살과 피를 영원한 생명의 양식으로 내어 주시면서까지 당신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아니, 이는 단순한 보여주시심 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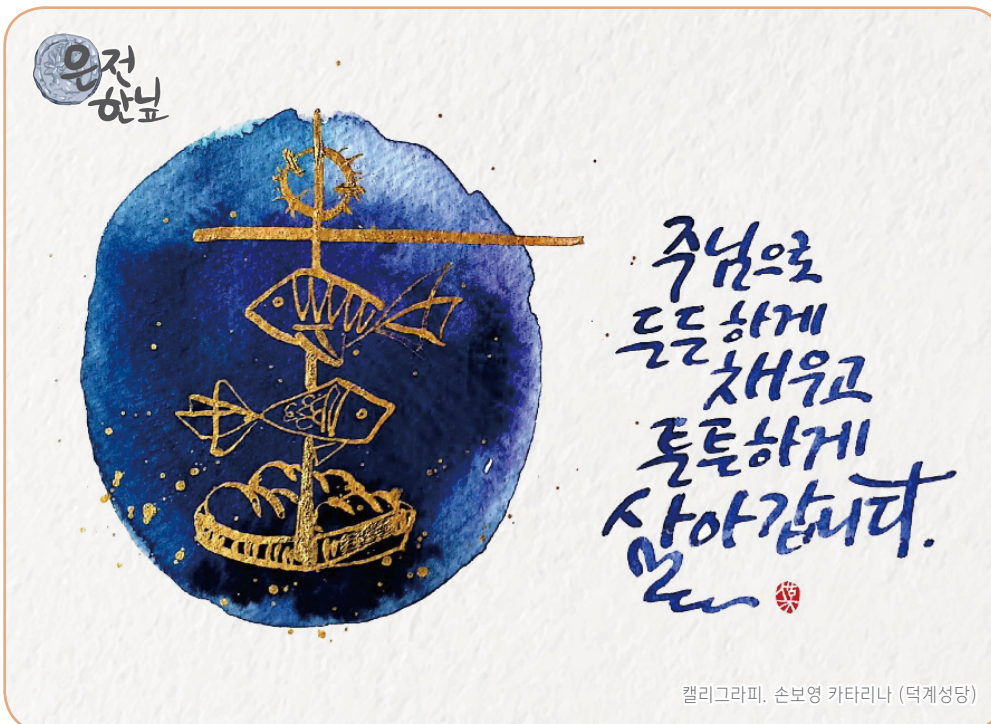
아닌 하느님의 적극적인 사랑의 고백이십니다. 이 세상 어느 종교의 신들이 이러한 일을 했었으며, 또 할 수 있겠습니까? '받아먹어라, 내 살이다' '받아마셔라, 내 피다'.

오늘도 우리는 미사에 참례하여, 주님의 살을 받아 먹고, 피를 받아 마실 것입니다. 더욱 감사하며 주님께서 내 안에 머무르시며, 우리도 주님 안에 머무름으로써 주님과 하나되어 기쁘고 행복한 나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

(요한 6,56)

김현영
마태오 신부
민락성당 주임



캘리그래피. 손보영 카타리나 (덕계성당)

cpbc 부산가톨릭평화방송
부산 FM 울산 FM 녹산 FM
101.1MHz 94.3 MHz 101.5 MHz

오늘의 강론 월~토 06:50

6.15(월)~16(화)
김현영 신부(민락성당 주임)
6.17(수)~20(토)
신동화 신부(북산성당 부주임)

사랑이 있는 세상

월~토 11:00~12:00
진행 : 김현지 리나
6.15(월) 부산가수다
출연 : 김준정 신부(예수성심전교수도회)

신부들의 수다

토요일 13:00~14:00
진행 : 홍영택 신부, 김병희 신부, 이추성 신부
[새 신부 6/20 옥종현 신부(옥동)
특집] 6/27 전동묵 신부(중앙)



보고 싶은 친구에게!

오늘 문득 너가 생각나 앨범을 꺼내 보았어. 베레모 쓴 검은 교복이 새삼 새롭더라. 너는 친구들이 보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늘 성호를 긋고는 점심을 먹었어. 나는 광안리에 있는 군법당에 다니고 있었고, 너가 다니는 성당 앞을 지날 때마다 '재가 믿는 저 종교에는 뭔가 있다'고 생각했었지. 너의 기도 덕분에 남편과 함께 세례를 받았단다. 같이 점심을 먹었던 친구 셋도 모두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고...

벚꽃이 모두 지고 난 오월의 어느 날, 남편과 함께 하늘공원에 갔어. 올해부터 매일 미사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 따사한 햇빛이 묘지와 봉안당을 가득 채웠어. 성전으로 오르는 계단의 끝자락에 예수님께서 두 팔 벌려 반겨주셨구. 깊은 울림을 주는 신부님의 강론과 단아한 미사 해설 소리가 그날따라

참 편안하게 느껴지더라.

미사를 마치고 묘지 주변을 천천히 걸어보았어. 매장묘와 고급스럽게 디자인한 가족묘, 성직자, 수도자묘도 있었어. 위령의 날 미사 때 느꼈던 감동이 되살아났지. 묘지 주변에 점점이 서서 고해성사를 드리는 모습, 뜨거운 햇빛 아래에서도 주교님과 많은 신부님들과 봉사자와 신자들이 경건하게 미사를 드리는 모습, 귀에 쫄쫄 들어오는 주교님의 강론 말씀, 삼천여 명의 신자들이 성체를 함께 나누었던 일들, 레지오 단원들과 묘지 옆에서 얘기 나누며 맛있게 먹었던 점심 등 남편에게 재잘대듯 이야기했지.

여기가 묘지 앞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느낌이 전혀 달랐어. 뭐랄까, 산 이와 죽은 이의 경계가 없는 것 같은? 엄마 품같이 따뜻하고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나는 용기를 내서 남편

에게 얘기했어. 나는 죽으면 이 하늘공원에 묻히고 싶다고. 선산에 함께 묻히는 것이 늘 당연하다고 생각하던 남편은 며칠 뒤 어려운 승낙을 했단다. 남편과 세례를 받고 성가정을 이루었으니 영원한 생명을 시작하는 이곳에서도 함께 하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게 되었어. 너가 믿는 종교를 믿고 싶다면 나의 첫 기도를 들어주신 주님께서 나의 마지막 바람도 이루어주시리라 믿어.

친구야, 우리 하늘공원에서는 다시 만날 수 있을까?

- 햇살 따뜻한 하늘공원에서...

정영옥 크리스티나
정관성당



창조질서보전을 위한 새로운 마음가짐 2. 직접 합니다.

'살림'이라는 말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번거롭기도 하고, 수고롭지만 살림을 살아내는 이가 있어야 공동체와 공간,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번듯하게 가꾸어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살림을 살아내는 것은 아주 귀한 생명의 몸짓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살림꾼'

이셨습니다. 손이 닿으시는 곳마다 생명과 치유와 회복을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발도 씻기시고, 부활하신 후 제자들을 위해 손수 밥상도 차리시고, 세심한 그분의 모습을 닮아갈 때 우리는 그분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

라."(루카 9,13)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소비주의에 기대지 않고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직접 하여 스스로 살아가야 합니다. 공산품에 의지하지 않고 직접 하여 작은 수고의 위대함과 기쁨도 함께 느끼고, 누군가에게 살림꾼이 되어 생명을 전하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051-464-8495)
woori-pusan@hanmail.net



직접 하기 위한 창조질서 보전 마음 돌보기

- 만들어진 것이 아닌 직접 만든 가족(공동체) 밥상을 차려 봅니다.
- 누군가를 위해 작지만 수고로운 일을 봉헌함으로써 예수님의 살림을 묵상해 봅니다.

← 신부님
2020년 6월 14일

신부님
와, 베드로

제 친구가 성당 구경하고 싶다고 해서 데려와서 여기저기 구경시켜줬는데, 설명하기 어려운 데가 있었어요.

신부님
어디?

고해소요. 저는 그냥 지은 죄를 고백하는 곳이라고만 했는데, 설명하고 나니까 친구가 감옥처럼 생각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신부님
ㅎㅎ그럴수도 있겠네.

성당 안 다니는 친구들한테 고해소를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신부님
.....

이렇게 설명하면 좋겠네.

성전은 '하느님을 만나 이야기하는 곳'이고,
고해소는 '나를 이야기하는 곳'으로.

신부님
애매한데요.

사실 죄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자기가 산 생활에 대한 거잖나?
그러니 잘못된 목록만 죽~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지냈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느낌으로 사는지,
이런 자기 이야기를 하는 곳.
그런데 그래도 돼요?

신부님
되지. 사실 사람들이 자기 이야기를 할 곳이 없잖아?
그것만으로도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겠지. 신자들에게는 은총을 체험하는 곳이고.
성당이 죄짓고 취조받아야 될 사람들이 오는 곳은 아니잖나?^^

날씨가 안 좋으면 괜히 우울하고 신경질적이게 되고, 날씨가 좋으면 그냥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게 바로 '봄'이 아닐까 합니다. 길을 가다가 진창물에 발이 빠져 신발이 젖어도 별로 신경 쓰이지 않는 그런 계절. 그런데 저희가 만난 레오 씨(가명, 61세)의 월세방은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찬 한겨울 같았습니다.

물론 그에게도 찬란한 봄날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존재라는 자부심에 행복했고, 회사에서는 인정받는 직원이자 가정에서는 든든한 가장이었거든요.

그런데 14년 전 함께 일하던 동료의 실수로 현장에서 추락해 골반과 다리를 다쳤습니다. 수차례의 대수술에도 회복은커녕 입원 중에 신장병까지 발병해 평생 혈액투석 치료를 받아야 했고, 당뇨합병증으로 인한 발가락 괴사로 오른쪽 엄지발가락을 절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장을 누벼야 하는 그에게 잦은 입원과 퇴원은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도 그는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긴 병에 효자 없고 장사 없다고 했던가요? 자신을 지켜주던 가족들은 하나둘 떠나갔습니다. 고맙게도 누나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홀로 사는 남동생이 자신을 돌보아주겠다고 했지만, 병은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14년 전 절단했던 오른쪽 발가락에 염증이 생겨 두 발에 전이되었고, 결국 오른쪽은 두세 번째 발가락만 남겨두고 절단하였으며, 왼쪽은 골반 아

래로 모두 절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쪽 눈의 시력마저 잃어버린 지금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휠체어와 의족 없이는 움직일 수조차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자신의 모습에 살아갈 희망마저 잃었지만, 누나와 동생의 격려로 버텨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의지했던 누나는 양로원으로, 남동생은 최근 식도암으로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남동생의 장례를 치러주고 싶었지만, 수중에 돈이 없어 집 보증금을 뺄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증자리마저 잃어버릴 상황이어도 후회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사회사목국과 복지관, 구청이 협력하여 긴급하게 보증금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병원 치료와 생계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어느덧 꽃이 지고 봄은 가고 있지만, 레오 씨에게는 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레오 씨와 대화하면서 꽃이 진다고 반드시 봄이 지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꽃이 진 그 자리에 진한 향기가 남아 있다면 여전히 봄은 아직 살아있는 것이니까요.

봄을 잃어버린 레오 씨에게 여러분들께서 봄을 안겨드리지 않으시겠어요?

■ 사회사목국(051-516-0815)

사랑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신협 131-016-582122
부산은행 101-2017-0218-01
예금주 : 천주교부산교구

본당의 날, 축하합니다 - 망미, 청학성당



망미성당(주임 : 석관홍 신부, 회장 : 태한영 세례자요한)은 지난 6월 7일(일) 본당의 날을 맞아 감사미사를 봉헌하고, 미사 중에 '행복한 삶, 아름다운 마무리'라는 주제로



로 특강을 마련했다. 특별히 본당의 날 기념품을 제작하지 않고, 경비 일체를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이들을 돕기 위해 로사리오 카리타스에 전달했다.

또한 청학성당(주임 : 윤승식 신부, 회장 : 김세권 마르코)에서도 지난 5월 31일(일) 본당의 날을 맞아, 감사미사를 봉헌하고 전신자들에게

성령은사 화분을 선물했다.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 장학금 전달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담당 : 강정웅 신부, 회장 : 이인숙 분다)는

지난 5월 27일(수) 부산가정법원에서 보호처분을 받고 있는 특별반 학생 6명(1인당 120만원)에게 장학증서를 전달했다. 빈첸시오회는 매년 학생들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환원시킬 목적으로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해양사목, 사랑의 묵주 전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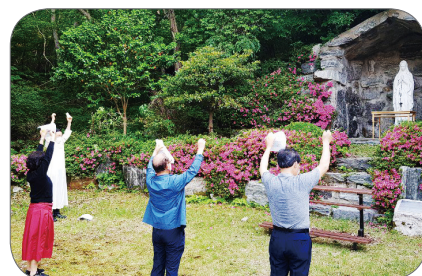


최근 선박 방문 봉사활동이 어려워진 해양사목(담당 : 이균태 신부)은 신자 선원들을 위한 묵주를 제작했다. 코로나19로 승하선의 어려움과 격리 수준에 놓인 선원들이 신앙의 힘으로 이 어려운 사태를 이겨낼 길 기대하며 묵주를 전달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주님의 자녀로 태어난 형제·자매들...



고리기도는 사랑을 싣고...



꾸르실료(지도 : 김경옥 신부) 주관으로 코로나19 종식과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환자와 의료진들을 위해 42개 본당, 500여 명의 신자들이 고리 묵주기도를 바치고 있다.



2020 성모의 밤 행사



받여



서동



화봉



하단



성바오로



가야



우정



서면



금정



양정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랑의 자선금 모금 내역

- 사랑의 자선금을 기부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6월 2일~6월 8일]

소계 : 16,716,500

구봉성당 441,500	남양산성당 1,160,000	모라성요한성당 200,000	연양성야고보성당 100,000	정관성당 6,060,000
익명 50,000	박명신 100,000	김순옥 100,000	장영숙 1,000,000	김정애 100,000
안다겸 100,000	익명 100,000	유태한 100,000	김주영 100,000	하은주 50,000
박성진 100,000	정은정 50,000	정혜정 50,000	박영일 100,000	김충원 50,000
김진경 65,000	이두원 50,000	안소향 100,000	남옥찬 100,000	박필자 30,000
권형석 50,000	이현재 200,000	정영수 30,000	M.maria 50,000	박철수 100,000
박재일 100,000	권보연 200,000	홍성임 100,000	손용 100,000	이희복 50,000
박중순 50,000	김도호 200,000	오중창 30,000	임호숙 1,000,000	김철권 100,000
서행환 30,000	박숙자 50,000	박경희 30,000	이윤희 1,000,000	최선애 100,000
정윤수 50,000	윤경현 100,000	장진아 200,000	윤철환 1,000,000	
				박봉자 20,000
				안병욱 300,000
				유영선 10,000
				이병언 100,000
				오순옥 100,000
				박차예 50,000
				김진하 100,000
				길명자 100,000
				이등은 100,000
				김성자 50,000
				김동영 100,000
				배연옥 50,000
				옥승철 100,000
				이승봉 100,000
				황해선 30,000
				윤정희 30,000

누계 : 709,649,090

※ 코로나 극복을 위한 기부금 모금에 동참을 원하는 신자분들은 아래 계좌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입금 계좌> 농협 301-0267-8167-11 예금주 : 전주교부산교구 ※ 입금 시 성명(본당) 기록. 예) 홍길동(남천)

<p>목주반지 전문 금방 다양한 예물, 커플링, 패션제품</p> <p>서울공예사</p> <p>법일동 역 12번 출구 중앙 귀금속 115호 (주.아) 631-5006, 631-5007 황인환(가톨릭)·김경자(모니카)</p>	<p>백천피부과의원 (구) 괴정동 백천피부과</p> <p>조광윤(안토니오), 김정민(아렛파) 758-1100 지하철수영역 3번출구 기미·잡티·여드름·흉조·주름개선</p>	<p>법무법인 올강</p> <p>민사, 형사, 가사, 상속, 교통사고, 음주운전 등 각종법률상담 형사·손해배상·가사·부동산전문 대표변호사. 임 경 표(세례자요한)</p> <p>717-2570, 010-7455-1031</p>	<p>물 세는 곳을 정확히 찾아, 보수</p> <p>삼일누수탐지공사 수도배관, 보일러배관 등 각종 누수 인터넷 검색어 : 삼일누수</p> <p>202-3011 이 국 영 (베드로)</p>	<p>포장이사 전문업체</p> <p>성신익스프레스 (영구크린 부산지점)</p> <p>이사와 청소를 한번에 해결해드립니다 242-4222, 1522-4324 www.ss0924.com</p>
<p>준자동차매매상사</p> <p>매매, 알선, 수출, 말소, 폐차</p> <p>010-3599-6420 승용-화물-외제차 현종삼(요셉)</p>	<p>또 하나의 가족</p> <p>미소드림 방문요양센터</p> <p>거동불편어르신/노인성질환 국비지원(100-85%)/무료신청 우수 요양보호사 택으로 파견</p> <p>김백영(레오) 방효영(에닷다) 010-6483-2707</p>	<p>하지정맥류 중점 클리닉</p> <p>덕천 길맥외과의원</p> <p>원장. 박 우 일(요셉)</p> <p>331-8888,8899 덕천역 9번출구 앞 파리버게트 건물 6층</p>	<p>거 제 주 단</p> <p>주단, 포목, 혼수, 예단 도소매 박대수(야고보), 최복순(데레사)</p> <p>632-0696 010-9331-6633 진시장 1층 주단부 318호 1층 8호문 안쪽 화장실 옆</p>	<p>준요양병원</p> <p>재활중점/치매/노인성질환 병원장. 최 준 식(안토니오)</p> <p>상담, 문의 525-7711 부산 동래구 인락동 433-5번지(총렬대로 372)</p>

교 구

교구 혼인강좌 안내

· 일요일 15:00~18:50 (매월 1~2회)
· 부산가톨릭대학교, 울산대리구청
대상: ① 결혼 준비하는 모든 예비부부
② 교회혼인 준비하는 모든 기혼부부
접수: 100% 홈페이지 (catholic-marry.or.kr)
비고: 신착순 50커플, 당일접수 불가
문의: 441-3501(가정사목국)

기관·제 단체·위원회

부산 체나콜로(다락방) 기도회 월미사

· 6.16(화) 15:00 · 가야성당
(6월 마리아사제운동 월미사는 3시 미사만 봉헌합니다. 성모님의 보호와 은총 안에 성령과 함께 끊임없는 기도로 일치합시다)
지도: 윤명기 신부 / 문의: 010-8879-2376

부산교회사연구소 순교자 현양 미사

· 6.20(토) 11:00 · 부산가톨릭대 신학교정
양재현마르티노관 2층 그레고리오성당
주례: 순교자현양위원회사제단 / 문의: 519-0471

전례꽃꽂이연구회 미리보는 전례꽃 및 월미사

· 6.22(월) 10:30 · 부산교구청 2층 성당
문의: 010-5186-4532, 010-4598-3911

민족화해위원회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토요일 기도모임과 미사

· 매일 세번째 토요일 14:00 / 문의: 516-0815
· 가톨릭센터 3층 301호 배움터

평신도선교사회 찾아가는 교리(가정,본당)

가정방문: 몸이 불편하셔서 본당교리가 힘든 분
본당방문: 교리교사가 부족한 성당
문의: 462-0334, 부산가톨릭신학원 홈페이지

교구평협 모바일 성경쓰기 자체시상

<한국평협과 함께하는 코로나19 극복 응원 이벤트 - 본당대항 모바일 복음쓰기>에 부산교구 별도 시상
시상: 1등(한국평협), 2등, 3등, 특별상(교구평협)

하늘공원(양산 천주교 공원묘지) 미사 예약

11월 위령성월 본당별 미사 예약 접수 중
* 봉안당 성당/중앙제대 이용
문의: (055)374-8733

가톨릭서예인회 제11회 정기전(부채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 6.29(월)~7.5(일) (초대: 6.29(월) 17:30)
· 가톨릭센터 대청갤러리
문의: 010-8542-3559(회장)

가톨릭센터 사무실 임대

용도: 사무실 7층(14평, 16평, 20평, 51평)
무료영화상영회 및 일일영화피징 취소 안내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예방을 위해 가톨릭센터에서 진행하는 6월 '무료영화상영회' 및 '일일영화피징'이 취소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462-1870(가톨릭센터 행정실)

교육·모집·기타

한국외방선교수녀회 후원미사

· 6.19(금) 10:00 · 사직대건성당
문의: 582-1774, 010-9081-1743

이태석신부참사랑실천사업회 후원회 미사

· 6.20(토) 10:00 · 이태석신부기념관 4층
문의: 241-1601

밀양가르멜수녀원 후원회 미사

코로나19로 6월 후원회 미사 없습니다
문의: 010-3577-6597

예수고난회 일일피징

코로나19로 6월 모임 취소되었습니다
문의: (02)924-8627, 010-9309-1388

대구가톨릭대학교 2021학년도 수시모집

모집인원: 3,017명(수시 2,635명)
가톨릭지도자추천(간호, 심리, 사회복지, 경찰행정 등) / 입학상담: (053)850-2580

예비자 통신교리(우편,사이버,신자재교육)

주소: 서울 중앙우체국사서함5234호/우04535
문의: (02)2274-1843~4, 홈페이지: cdcc.co.kr
주최: 가톨릭교리통신교육회 / 요금: 1만원

제15회 가톨릭 환경상 공모

대상: 창조질서 회복과 보전을 위하여 헌신하는 개인이나 단체 / 문의: (02)460-7622
접수: 6.15(월)~7.17(금) / 시상: 10.8(목)
전자우편: cbckcee@hanmail.net / 추천서 양식 다운로드: 주교회의 홈페이지(www.cbck.or.kr)
접수처: 서울시 광진구 면목로 74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

평협과 함께하는 2020 cpbc 창작성가제

주제: 생명·평화를 주제로 한 창작성가
자격: 가톨릭 신자 또는 예비자
시상: 대상(300만원), 최우수상(150만원), 우수상(100만원), 장려상(50만원)
접수: 7.31(금)까지 메일 접수(1인 1곡 출품, 신청서와 함께) / 자세한 공모 내용은 www.clak.or.kr 또는 모바일앱 [한국평협] 참조
문의: (02)777-2013

행복나눔 심리상담실 (명칭 및 이전) 안내

행복나눔의 전화상담: 463-7866
상담: 월~토 10:00~16:30(명령역 2번 출구)
내방상담: 신자, 비신자, 타종교인 및 지역민
청소년 심리상담 및 성인 상담: 토 10:00~16:30
영적 문제 및 고해상담: 조옥진 신부(상담 박사)
운영자: 김정애, 전문상담사 및 조옥진 신부

<p>부산가톨릭대학교 CATHOLIC UNIVERSITY OF PUSAN</p> <p>2021학년도 재외국민전형 원서 접수 안내</p> <p>기간: 7월 20일(월)~7월 24일(금) 모집학과: 간호학과 외 17개 학과</p> <p>문의: 051-510-0702~4 www.cup.ac.kr / ipsi.cup.ac.kr</p>	<p>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 6월 15일부터 확대 운영</p> <p>간병부담은 줄이고 입원서비스의 질을 높여드립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간병비 부담 감소 질 높은 의료 서비스 제공 전문 간호인력 24시간 의료서비스 제공 <p>부산가톨릭의료원 메리놀병원</p>	<p>혼인미사(결혼식) 특화성당</p> <p>토, 일, 공휴일: 11, 13, 15, 17시</p> <p>예약: 051.441.3500 (수~일) catholicwedding.kr</p> <p>1989·2018 부산가정성당 Matrimonium · AMOR · Familia</p>
-------------------------------------------------------------------------------------------------------------------------------------------------------------------------------------------------------------------	--------------------------------------------------------------------------------------------------------------------------------------------------------------------------------------------------------------------------------------------	-----------------------------------------------------------------------------------------------------------------------------------------------------------------------------------------

'옥에 티'를 찾습니다! 주보에서 오·탈자를 발견하시면 카카오톡 채널 '가톨릭부산', 이메일로 알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p>뉴트로한복·동국주단</p> <p>디자이너 장정애</p> <p>997.0707 010.9243.5776</p>	<p>바른성모안과</p> <p>망막(황반변성, 당뇨망막증, 망막혈관폐쇄), 백내장</p> <p>원장 최 베드로(한국망막학회 정회원)</p> <p>242-0075</p> <p>서구청 역 바른병원 3층</p>	<p>동래교차로(수안동) 독일보청기</p> <p>청력검사, 난청유형별맞춤처방, 정부지원 보조금상담, 교우특별할인, 즉석 A/S</p> <p>방(아브라함) 송(아가다)</p> <p>555-5777</p> <p>동래구 총령대로 229. 수안역 7번출구 앞 2층</p>	<p>갑상선·당뇨·고혈압·골다공증 김용기내과의원</p> <p>[총무동 구. 김동수 내과]</p> <p>원장 김용기(T. 아퀴나스)</p> <p>전 부산시대 학장 외 내과전문의 8명</p> <p>상담 및 예약 245-7100</p>	<p>50년 전통 명신당</p> <p>목주반지, 귀금속 예물도매 전문 반광옥(바오로) 김영란(제노베라)</p> <p>010-3599-7885 646-7885</p> <p>범일역 1번출구 진시장 방면 약 50미터 거리</p>
<p>부산경남 최대규모 제조업체 가나안보청기</p> <p>유동마진(가격저렴) 제거 청각학 박사(교수) 맞춤상담 남포점, 서면점, 동래점, 미남역점</p> <p>교우특별우대 257-3900 김도현 모세 010-7674-2828</p>	<p>동래 참사랑요양병원</p> <p>뇌졸중, 통증 재활 치료, 척추 손상 치매, 중풍, 간병 치료, 양·한방 협진</p> <p>동래: 553-0050 추홍수(야교보) 광안: 751-1515 김명희(아베스)</p>	<p>바티카노</p> <p>성물, 전례용품 전문점 디자인 목주반지(금, 은)</p> <p>517-4224 010-5488-4224</p> <p>가톨릭 신학대학 앞</p>	<p>박숙현 정신건강의학과의원</p> <p>공황장애, 우울장애, 수면장애, 치매, 횡병</p> <p>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박숙현 (에스텔) 의학박사</p> <p>611-3339</p> <p>남천 지하철역 3번 출구, 대남빌딩 5층</p>	<p>내일N성형외과</p> <p>최수중(루카)</p> <p>전. 부산대학교병원 성형외과 과장 / 교수 논, 코, 윤곽, 가슴, 지방성형, 보톡스, 필러, 레이저</p> <p>상담 및 예약 231-8088</p> <p>부산시 서구 보수대로 9(아라뽀병원 2층) / 서구청 옆</p>